

성장 Growth

가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

글쓴이 Marc Rutter

성장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구속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핵심이다. 우리는 1951년 CCC의 시작 이래로 복음이 전진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헌신해 왔다. 성장은 "승리, 구축 및 전승" 중 "구축"의 단계와 관련이 있다. '성장은 믿음', '결실'과 더불어 우리의 핵심 사역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이미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셨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장을 계획하신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할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혼동할 때 발생한다. 왜? 아마도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측정하기보다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성장은 "점대점" 사고로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는 "점"(프로그램)이 아니라 "**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장**"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장은 단순히 연속적인 사역의 순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진정한 내적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 영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은 사역 프로그램에서 일어나곤 하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겉보기에는 성숙해 보이는 리더가 어두운 곳으로 추락하는 일은 어째서 일어나는가? 영적 진리를 이해하고, 윤곽을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과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고 물을 주지만 성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와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과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신성한 초상화

우리 성장의 맥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더 큰 그림에 포함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함하여 잃어버린 사람들과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고 계시다. 성장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삶이 본래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그 관계를 파괴했는지, 그리고 구속을 통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지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려면 하나님은 신성한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18-19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복음과 성장의 핵심은 만물을 원래대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How People Grow'에서 Dr. Henry Cloud와 John Townsend는 영적 성장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한 삶은 무엇인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준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그리고 서로와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창조하셨다. 넷째,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은 구별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역할에 혼란이 없었다.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의 근원이자 공급자였으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였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우리는 그분의 통제에 굴복하며 스스로는 다스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삶의 심판자이셨고 우리는 그 삶의 친밀함과 관계를 경험해야 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고 현실을 설계하셨고 우리는 그 법칙에 순종하여 그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초상화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전시켰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에서 독립하여 하나님과, 또 서로와의 관계를 잃고 하나님의 뜻을 찬탈하여 자기 주인이 되려 했음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을 역전시켰고 이제 그 결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우리 자신의 근원이 되는 경향은 우리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우리를 배고프고 공허하게 만들고 참된 삶 대신 정욕과 이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다. 둘째, 통제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세상과 서로를 통제하려 하게 만든다. 셋째, 생명의 심판자가 되려는 욕망이 남과 자신을 심판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하나님이 되려는 우리의 열망은 우리 자신의 규칙과 현실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명을 잃어버린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화해” 시키고 계신다. 구속을 통해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의 하나님과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이 그분의 주권 하에 있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다시 회복된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성장하는 마음과 구속된 삶을 가져온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둘째, 우리는 사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에 굴복하고 신뢰하며 안식하게 된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심판하려는 역할을 포기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을 우리 방식대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계획하신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성장은 본질적으로 이 구속과 회복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은혜와 진리 그리고 시간

그렇다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Henry Cloud는 그의 초기 저서인 치유의 변화(Zondervan, 1992)에서 진정한 영적 성장과 정서적 건강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한다. 정서적 건강과 성장의 공통 요소는 은혜, 진리, 시간이다.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은 오직 진리와 은혜의 맥락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Henry는

"은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이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이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것도 아니며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진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말해준다. 그것은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두 번이나 "은혜와 진리"(요한복음 1:14, 17)가 총만하신 분으로 묘사된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삶들을 은혜와 진리로 만지고 변화시키셨다. 주님은 자신을 거둬 자신의 말씀에 앞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진실인 진리,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은혜에 의해 변화된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기억하는가? (요 8:2-11)? 모든 가르침을 행한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은혜). "이제 가서 죄의 삶을 떠나라"(진리).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고쳤을 때(요 5장),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셨지만(은혜) "죄를 그치라"(진리)고도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충성을 서둘러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재빨리 진리를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 그러나 돌아온 후에는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은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한다. 은혜가 없고 사랑으로 단련되지 않는 진리는 심판일 뿐이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영성은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 은혜가 없는 규칙은 순응과 정죄로 이어진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쉽게 방탕으로 연결된다 - 성장, 변화, 제한, 결과 도 없기 때문이다. Henr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혜와 진리는 모든 성장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인 죄책감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필수적인 치유의 조합이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반역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또는 둘의 조합으로 인해 감정적 어려움을 겪곤 한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우리는 결코 고립되어 성장할 수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시간이다. 성장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은 그 자체로 성장을 일으키지 않지만 시간 없이 성장하기란 불가능하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눅 13:6-9)는 시간과 함께 input(은혜와 진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Henry는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좋은 시간이란 우리와 우리의 경험이 은혜와 진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때를 말한다.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을 떼어 놓는다면, 은혜와 진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변화될 수 없다. 문헌 달란트(마 25:26, 27)는 변하지 않는다.

완벽이 아닌 성장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는 완전함(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완전하게 사셨다)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화로움을 반영하기를 바라신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야기와 계획을 기억해야한다. 그분은 회복 사업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옹호자이시며, 주권적인 주님이신 그분께 응답하고 복종하라. 그분이 당신의 삶에 생명을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를 주시도록 그분을 초대하라. 서로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교제하라. 그런 다음 그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에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지 지켜보라. 이것이 우리를 위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이요,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크시고 은혜로우신 구주가 되시는지 만각하라!